'환혼' 신승호 "D.P와 다른 모습 보여줘 목표 이뤘죠"

박PD·홍자매 작가가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준 덕분
마지막회 9.2% 종료,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5위까지 올라

탤런트 신승호(27)는 작품마다 깜짝 놀라게 한다.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 '디피'(D.P)에서 후임을 괴롭히는 병장 '황장수'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28일 막을 내린 tvN 주말극 '환혼'에선 대호국 세자 '고원'으로 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퓨전 사극인 만큼 배우들의 연기 톤이 제각각이었지만, 신승호는 중심을 잡아줬다. 이재욱(24)을 비롯해 유인수(24), 그룹 '뉴이스트' 황민현(27), '오마이걸' 아린(23) 등 사이에서도 흔들림없는 연기력을 선보였다. 스스로도 "매번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다"면서 "전작과 비교했을 때 목표를 이뤄 기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연기력 늘어난 비결요? 사실 잘 모르겠다. 누구나 초반에는 연기자로 활동한 연차, 횟수가 길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작품에서 고원은 다른 캐릭터보다 나와 굉장히 많이 닮아 큰 어려움은 없었다. 물론 고원이 자유로워서 더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촬영하는 내내 즐거웠다."

이 드라마는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비틀린 이들의 이야기다. 천하제일 살수 '무덕이'(정소민)와 대호국 장씨 집안 도련님 '장욱'(이재욱)의 사제 로맨스를 그렸다. 신승호가 맡은 고원은 겉으로 옹졸하고 심술쟁이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도 많았다. 얄미우면서도 귀여워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신승호 역시 "실제 성향과 가장 많이 닮은 캐릭터"라며 "귀여운 꼴통 같다"고 공감했다. "전작 영향인지, 내가 등장하자마자 '또 악역인가?'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더라"면서 "조금씩 '어? (악역이) 아니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싶었다.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왔다갔다 했다"고 털어놨다.

박준화 PD와 홍정은·홍미란 자매 작가가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준 덕분이다. "애드리브도 원 없이 해봤다"며 "이 정도로 해본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다. 디피 촬영 중 환혼 미팅을 했는데, "고원은 PD님과 작가님이 따로 만들어준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PD님 처음 뵀을 때 작품 얘기도 했지만, 1시간 넘게 수다 떨고 담소를 많이 나눴다. 실제 내가 가진 여러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런 캐릭터를 한 번 만들면 재미있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래 배우들 뿐만 아니라 선배들과 호흡하며 배운 점도 많다. "감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젊은 술사로 등장하는 또래 배우들 만큼이나 선배들이 많이 출연하지 않느냐. 선배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가르침이 됐다. 값진 경험"이라며 "선배들이 항상 즐거운 현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슛' '컷' 사인이 나오는 외의 시간에도 배우는 게 많았다"고 돌아봤다.

특히 왕실 직속기관인 천부관 부관주 '진무' 역의 조재윤(48)에게 고마운 마음을 내비쳤다. "파트2도 촬영 중인데, 현재까지 방송된 걸 보고 현장에서 피드백을 해줬다"며 "스스로 부족함을 알지 않느냐. 그래도 선배가 '이 신 진짜 재미있고 멋있더라'면서 좋은 부분을 얘기해줬다. 내가 이전에 출연 작품까지 말씀해줘서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다. 조재윤 선배는 현장에서 정말 재미있고 후배들도 잘 챙겨줬다"고 귀띔했다.

환혼은 시청률 10%를 넘지는 못했지만, 좋은 반응을 얻었다. 1회 5.2%(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20회 9.2%로 막을 내렸다. 입소문을 타고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5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박은빈 주연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신드롬급 인기를 끌면서 많이 가려진 게 사실이다. "'상관없어요'는 아니지만, 딱히 아쉬움은 없다"며 "우리 작품도 좋은 반응을 얻어서 기분이 좋다. 시청률이 더 오르고 화제되면 좋겠지만 아쉽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물론 1년 넘게 촬영하며 지칠 때도 없지 않았다. 파트1(20부)을 마무리했지만, 파트2(10부) 촬영도 진행 중이다. "다 찍은 듯 안 찍은 것 같다"고 하는 이유다. "워낙 판타지가 많아서 (신을) 왔다갔다 한다"며 "파트2도 정말 재미있다"고 자신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환혼은 20대 후반을 책임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촬영을 너무 오래해 아예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지만,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의 스물여덟은 환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승호는 어느덧 데뷔한 지 6년이 지났다. 축구선수로 활동하다 2016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데뷔작인 웹드라마 '에이틴'(2018)으로 처음부터 주목 받았고, 10대 사이에서 팬덤도 형성했다. 이후 '열여덟의 순간'(2019) '좋아하면 울리는'(2019) '계약우정'(2020) 등에서 연기력을 쌓았다. 축구선수와 모델로 활동한 경험이 연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1~2년 사이 군 입대를 해야 하지만, 조바심은 없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 차기작은 결정된 게 없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다가오지 않은 것에 불안해 하고 초조해 하기 보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처음에 부모님이 배우가 되는 걸 반대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한다. 어느 부모님이나 그렇겠지만 자식들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시간이 찾아와 행복하다."

윤제균, K-팝 영화 만든다…차은우 주연 유력

영화 'K팝:로스트 인 아메리카' 제작 확정

윤제균 감독이 K-팝 그룹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든다.

CJ ENM은 "윤 감독이 영화 'K팝:로스트 인 아메리카'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촬영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29일 밝혔다. 이 영화는 미국 뉴욕 메디슨스퀘어 가든에서 데뷔하기로 한 K-팝 보이그룹이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돈도 휴대전화도 없이 낯선 텍사스 시골 마을에 머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CJ ENM은 "K-팝 보이그룹이 뉴욕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 청춘의 갈등과 성장을 그리며 전 세계 관객이 공감할 만한 유머와 감동을 전하는 청춘음악로드무비"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과 영화 '인터스텔리' 등은 제작한 프로듀서 린다 옵스트가 의기투합해 만든다. 이 부회장은 평소 K-팝 등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관심이 많았고, 옵스트는 K-팝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이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했고, 이 작업을 윤 감독에게 맡겼다.

윤 감독은 "이 분야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했다. CJ ENM 관계자는 "옵스트 외에도 영화 '금발이 너무해' 각색으로 유명한 커스틴 스미스와 함께 세계 최고 공연 촬영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수의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와 협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작품 주연은 배우 차은우가 맡는 게 확실시 되고 있다. 앞서 리벨 윌슨, 찰스 멜튼 등은 출연을 확정했다.

블랙핑크, 美 MTV VMAs 2관왕…"블링크에 감사"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베스트 K팝' 부문 수상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미국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ideo Music Awards·2022 MTV VMAs)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블랙핑크는 29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뉴저지 주 푸르덴셜 센터에서 열린 '2022 MTV VMAs'에서 올해 신설된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 상을 받았다.

본 시상식 전 펼쳐진 '2022 MTV VMAs' 레드카펫과 프리쇼에서 이 상을 차지했다. 블랙핑크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PUBG MOBILE) 인게임 콘서트로 이 상을 가져갔다.

최근 가상세계 콘서트가 잇따라 열리자, 현지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2022 MTV VMAs가 발 빠르게 도입한 부문이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내 퍼포먼스로 같은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다른 후보들도 쟁쟁했다. 로블록스에서 공연한 찰리(Charli) XCX, 가상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웨이브(Wave)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해 콘서트를 연 저스틴 비버, 포트나이트에서 '리프트 투어(Rift Tour)'를 연 아리아나 그란데, 역시 로블록스에서 공연한 트웬티 원 파일럿츠(Twenty One Pilots) 등이었다.

또 블랙핑크 멤버 리사는 이번 시상식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솔로곡 '라리사(Lalisa)'로 '베스트 K팝' 부문을 받았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해당 상을 받은 것은 리사가 처음이다. 방탄소년단(BTS) '옛 투 컴', 세븐틴 '핫(Hot)', 있지(Itzy) '로꼬(Loco)', 스트레이 키즈 '매니악', 트와이스 '더 필즈(The Feels)'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쳤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우리에게 상을 안겨준 블링크(팬덤명)와 MTV VMAs 모두 감사하다. 팬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9월 16일 발매 예정인)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와 월드투어를 통해 팬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또 리사는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며 "내 솔로 프로젝트를 함께 한 테디 오빠와 YG 그리고 스태프들 모두 감사드린다. 블링크와 멤버들에게도 모두 고맙다"고 벅차했다. 리사의 수상을 현장에서 지켜본 블랙핑크 다른 멤버들인 지수, 제니, 로제는 함께 크게 즐거워했다.

특히 블랙핑크는 이날 시상식에서 K팝 걸그룹 처음으로 퍼포머로 무대에 올랐다. 정규 2집 '본 핑크' 선공개곡으로, 지난 19일 발매된 '핑크 베놈'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본 핑크' 상징적 이미지인 송곳니에서 분홍색 독 한 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퍼지는 연출로 시작됐다. 검정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 네 멤버들은 강렬한 음악에 맞춰 역동적인 안무를 선보이는 가운데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스모그 연출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헌트' 3주 연속 1위…'한산' 700만명↑

영화 '헌트'가 3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렸다. 코미디영화 '육사오'는 개봉 첫 주말에 '헌트'에 버금가는 성적을 내며 선전했다. '한산:용의 출현'은 700만 관객을 돌파했고, '탑건:매버릭'은 800만 관객 고지를 눈앞에 뒀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헌트'는 26~28일 전국 1221개 관에서 1만5377회 상영, 36만9916명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다.

누적 관객수는 372만100명이다. 현재 흥행 추세로 볼 때 '헌트'는 돌아오는 주말께 무난히 400만 관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둘째주에 개봉하는 '공조2:인터내셔날' 이전까지 '헌트' 자리를 위협할 만한 작품은 없다.

'헌트'는 배우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이다. 이정재가 각본도 썼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안기부에 잠입한 간첩 '동림'을 잡기 위해 두 요원이 나서고, 이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정재가 안기부 요원 '박평호'를, 정우성이 또 다른 요원 '김정도'를 연기했다.

이밖에 전혜진·허성태 등이 출연했다.

얼마나 무섭길래…공포영화 '인비테이션' 美 주말 1위

호러영화 '인비테이션'이 미국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Box Office Mojo)에 따르면, '인비테이션'은 26~28일 전미 3114개관에서 700만 달러를 벌어들여 개봉 첫 주말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내털리 이메뉴얼이 주연한 이 영화는 '에비'(내털리 이메뉴얼)가 한 남자를 만나 의문의 집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토머스 도허티, 휴 스키너 등도 출연했다.

2위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코믹액션영화 '불릿 트레인'이었다. 개봉 4주차 주말에 560만 달러를 추가한 이 작품은 누적 매출액 7820만 달러를 기록 중이다.

영화는 킬러 '레이디 버그'가 서류 가방을 훔쳐오라는 미션을 받고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신칸센을 탔다가 또 다른 킬러들과 엮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피트가 레이디 버그를 연기했다. 연출은 '존 윅'(2015) 등을 만든 데이비드 리치 감독이 했다.